

# 자기서사 분석을 활용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서사분석의 융복합적 기법적용-

김은정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치료학과 전공 박사과정

## A Case Study on Literary Therapy Using Self-Narrative Analysis -Application of Convergence Techniques in Epic Analysis-

Eunjung Kim

Student, Division of Literature Therapy, Konk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문학치료의 자기서사 진단과 작품서사의 공명성을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파악하여 스스로 자가치유를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문학치료의 자기서사진단과 기초서사진단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서사를 이해하고 작품서사와의 공명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문학치료의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을 통해 자기서사를 이해하고 자문화 기술로 자기의 심리적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문학치료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기서사를 이해하는 것과 작품서사와의 공명을 통해 치유적 자기탐색을 하는 것에 새로운 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밝혔다.

**주제어** : 융복합, 자기서사, 기초서사, 작품서사, 사례연구, 민담, 자문화 기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self-healing by identifying self-description by utilizing the self-description diagnosis of literary therapy and the resonance of the work narrative.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therapy, which uses the self-introduction team of literary therapy and basic photography team to understand their own narrative and to heal themselves through resonance with the work narrative. Through this study, we understood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identify and understand one's psychological problems through self-description and self-culture techniques. This case study revealed that it can be used as a new technique for understanding self-description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literary therapy and for healing self-exploration through resonance with the work narrative.

**Key Words** : Convergence, Self-narrative, Work narratives, Case study, Basic narrative, fairy tale, self-cul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mlcej@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5,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February 23,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작품서사를 통하여 자기서사를 분석하는 것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병리적 혹은 부적응적인 심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 진단의 과정 자체가 치료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1]. 문학치료와 기존치료와의 차별 점은 진단과 치료가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작품과 접촉하여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동시에 치유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공명을 통해 자기치유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서사 사이에 일어나는 치유적 작용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발현되는지 이해한다면 작품서사를 통해 자신의 치유를 이끌어 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이러한 서사의 공명을 자문화 기술방법으로 기록하여 고착된 서사를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서사분기점을 찾는 것 역시 이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 연결된 개인의 서사가 기존의 병리성을 건강한 서사로, 새로운 분기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학치료 서사진단

자기서사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존재의 서사를 근거로 한 대인관계 서사를 살펴보았다. 대인관계 양상으로 드러난 관계의 서사 이면에 근원적인 영향을 주었던 존재의 서사를 살펴보는 과정은 한 개인의 다층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해준다. 관계에 있어 존재가 전제되고 존재는 관계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상 하나의 대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며, 이는 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더욱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적합한 형태로 분석할 길이 열릴 수 있다[3]. 존재의 서사에 대한 진단은 심리학적 진단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심리검사는 각 사람마다의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과정 자체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얻게 해주는 도구이다[4]. 존재의 서사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동시에 서사로 이어지는 포괄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심리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MMPI-2[5]와 TCI[6]를 활용하였다.

### 2.2 자문화 기술

자문화기술지는 Geertz, Clifford & Marcus가 기존의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철학적, 방법론적 경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이에 따른 재개념화 시도의 추세와 함께 나타났다[7].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자들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과정을 거친다[8].

이처럼 자문화기술지의 자료 수집은 기억회상, 자기성찰, 자기분석 등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인 자료를 주된 자료로 수집하고 문헌, 문화적 인공물 등의 증거자료와 연결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9].

## 3. 연구 방법

자기서사진단은 두 영역으로 진행하였다. 존재의 서사진단에 필요한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인 MMPI-2와 TCI를 참고하였고, 관계의 서사와 존재의 서사가 지니고 있는 병리적 정서의 원인 탐색은 기초서사진단지를 활용하였다.

작품서사분석은 폴 오스터의《달의 궁전》를 중심 작품으로 하였고, 분기점의 비교 작품으로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와 《호랑이 눈썹》[10]을 참고하였다.

자기서사진단을 서사 진단과 심리검사로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작품을 선정하고 자문화 기술형식으로 자신의 서사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기간은 총 6개월 동안 주 1회 3시간씩 15회기를 진행하였다.

### 3.1 심리검사를 통한 존재의 서사 진단

Table 1. MMPI-2

VRIN	TRIN	L	F	K	HS	D	
37	51	52	54	56	49	55	
Hy	Pd	Mf	Pa	Pt	Sc	Ma	Si
42	46	47	39	54	43	43	51

Table 2. TCI

Temperature	Stimulus pursuit	54	NS	M
	Danger avoid	60	HA	M

Character	Social Sensitivity	53	RD	L
	Persistence	78	P	
	Autonomy	79	SD	H
	Solidarity	82	C	H
	Self-transcendence	80	T	H
	Autonomy + Solidarity	161		

두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우울과 강박, 내향성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점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이 주로 강박적인 불안이 높을 때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갈등상황을 내향화된 태도의 해결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연행동, 우유부단, 미약한 신경증 등의 증상을 자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TCI검사는 이에 보충적으로 기질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3.2 기초서사를 통한 관계 진단

기초서사의 영역에서 좌절, 승리, 상생의 서사와 자녀, 남편, 부부, 부모서사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다시 각 영역에서 소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주체가 놓여있는 '입장'과 서사의 주체가 관계 맺기 방식에서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서사의 연역적 체계를 이룬다[11].

Table 3. Basic epic

Classificati-on1	score	Classificati-on2	score
Epic of frustration	15	Epic of child	12 (3, 4, 5)
Epic of Victory	17	Epic of couple	12 (4, 4, 4)
Epic of win-win	18	Epic of a pair	13 (4, 4, 5)
		Epic of parent	13 (4, 4, 5)

분류기준1의 영역에서 상생의 서사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온 것은 상생에 대한 의미를 좌절이나 승리의 서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좌절의 서사의 영역이 상생과 3점의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 좌절에 대한 상처를 받아들임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의 가치에 높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소망단계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 3.3 자기서사진단 종합 분석

MMPI-2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우울과 강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두 척도의 값이 동시에 높게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제의 상황에서 해결 가능성을 비판적이고 자기 반추적인 태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매우 힘들다. TCI의 결과에서는 이런 내향적인 강박이 기질에서 비롯된 성향임을 보여준다. 후천적 성격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내향적 측면을 보완하는 면이 있으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이 없고 수동적인 태도는 우울감을 상승시켰고, 강박적인 불안을 표현하기보다 내재화시키는 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다소 냉소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로 깊이 있는 관계 맺기를 거부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 기초서사의 진단과 연결되어 살펴본다면 수동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은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자기주장을 통해 표현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 자신을 맞추어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박적인 불안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검사의 결과에서 아직 좌절의 극복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생으로 가기 원하는 것 역시 상생의 서사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강박적 우울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많고 내재화의 경우 자살사고와 이어지기도 한다.

기초서사의 영역에서 자녀서사의 좌절된 상처는 강박적이고 우울한 성향으로 인해 표현되지 못한 채 내재화되었고 대인관계의 냉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속감이 상실되었고 관계의 불편함은 타인에게 짐이 되는 느낌을 갖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좌절은 자살사고로까지 비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자기서사진단을 하며 심리검사의 영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우울감과 강박의 원인이 되는 서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짐작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우울과 강박이 자녀서사의 좌절서사 부분과 연결되며 심층적인 근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3.4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과 설화를 적용한 자기서사 분석

자기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때때로 이유 없는 우울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할 때마다 이 책의 구절들이 생각났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심리적 부분이라 여겨왔다[13]. 이 기회를 통해 작품의 서사를 통해 깊이 있는 접촉을 시도해보았다.

포그는 출생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시작했고,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어린나이에 잃게 된다. 함께 살게 된 외삼촌은 클라리넷연주가였고 축망받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으나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방인 같았다. '포그 집안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에게도 뚜렷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공상에 잠기고, 벼락같이 화를 내고, 한참씩 무기력에 빠져 드는 기질이 있었다.'[14]

포그는 '포그'라는 외가의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포그 집안의 무기력과 우울,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해 떠도는 정신의 기질을 물려받았다. 포그는 삼촌의 죽음으로 경제적인 빈곤이 심해진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벌거나 일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15].

포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한다. 그는 삼촌의 책들을 내다팔아 식료품을 산다. 이마저도 책들이 다 바다나자 그는 그저 삶의 흐름에 그 자신을 맡긴 채 도시를 배회한다. 포그가 절망 앞에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는 것이었으나 그의 태도는 자포자기나 허무주의적인 것과는 달랐다. 이 분기점에서 유사한 민담 두 편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한국민담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시집살이의 고단함으로 인해 중이 되어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다 친정어머니를 만나 서럽고 아픈 마음을 참지 못해 자결을 하고 만다.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역시 삶의 빈곤을 견디기 힘들어 호랑이 밥이 되기 위해 산으로 오른다. 세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먹을 끼니가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 절망 앞에서 각 서사의 주체는 선택을 해야 했다.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끼니를 이어가기 위해 절로 들어가 중이 되어 동냥을 한다.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은 호랑이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 산으로 떠난다. 《달의 궁전》의 포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에 자신을 맡긴다.

절망 앞에선 그들의 선택은 서사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작용하는데, 절망 앞에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삶에 자신을 맡겼던 포그는 키티라는 중국인 여학생으로 인해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어든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버티지 못한 며느리는 포그의 거지생활과 비슷한 동냥을 하는 삶을 선택하지만 분명 그 둘의 마음가짐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포그의 절망은 책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그저 운명에 자신을 맡긴다. 이는 허무주의적 포기와는 다른 순응적 태도에 가깝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는 포그의 순응과는 다른 회피에 가까운 태도로 보인다. <호

랑이 눈썹>의 주인공은 이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죽음을 선택한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세 명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다른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포그가 겪는 두 번째 절망에서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과 같은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 태도는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며느리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절망에 대처하는 선택이 달라진다. 그녀는 삶의 절망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서사의 주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떠나거나 있는 그대로 절망적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사에서 죽음은 정신적 죽음이며 이는 곧 낡고 오래되어 병든 정신의 통과와 이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떠한 변화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죽음이 해결일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자살사고에 대한 경험은 대다수의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형태이다.

나의 이십대는 포그 집안의 사람처럼 감정의 극단을 오갔고 때론 희망이 저절로 차오를 때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 지내기 일쑤였다. 현실의 뿌리내리지 못하는 정신은 책이라는 또 다른 현실로 도피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현실이라는 차갑고 냉정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순간은 언제나 죽을 만큼 힘들었고 회피하고자 하는 신경증의 상태로 지내왔다. 자녀서사의 좌절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삶의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에서는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의 며느리처럼 내 안의 절망을 회피한 채 삶을 구걸하는 태도로 살아왔던 것 같다.

오래전《달의 궁전》을 읽으며 포그가 삶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절묘한 역설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들이쉬는 모든 숨결로 나 자신의 운명을 음미하는 법을 배울 셈이었다.(16) 나에게 이런 버티는 힘과 수용의 태도가 있었다면 어쩌면 삶의 방향은 오래전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것은 매우 관습적이고 인위적인 반복이었다. 걸보기엔 뭔가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높으로 더 빠져드는 허무적거림이었다. 서사진단을 통해 나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자녀서사와 좌절의 서사에 직면하게 되었다. 작품의 서사를 통해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안전한 느낌으로 수

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사의 맥락으로 진단을 따라가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서사를 직면하기도 하였고, 심리검사의 증상의 원인으로 자리 잡았던 근원적 서사와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자녀서사와 좌절의 서사를 극복했었다고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나 우울서사 설화를 읽던 중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에서 포그의 선택과 유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태도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 지점에서 막다른 절벽에 서게 되었다.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이 된 듯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기초서사진단에서도 드러났듯이 작품의 분기점에서 마주한 나의 모습은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의 며느리처럼 주어진 삶의 짐을 회피한 비루한 그것이었다.

세 편의 서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서사는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기점에서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이 생겨난다. 이는 열린 희망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어 삶에도 그 구조적 틀이 적용되게 하는 힘이 있다. 나는 아직 절망의 끝을 피해버린 며느리의 서사에 머물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서사의 끝은 항상 새로운 분기점에서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호랑이 눈썹〉의 주인공처럼 통찰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달의 궁전》의 포그의 여정처럼 많은 상징적 죽음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심리검사와 기초서사진단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자기서사 진단을 분석한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존재의 서사와 관계의 서사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증상의 근본적 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과 두 편의 설화 〈호랑이 눈썹〉, 〈시집살이 고달파서 중이 된 며느리〉를 함께 비교하여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공명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사의 공명을 통해 선택과 결과의 바탕이 된 중요한 화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실질적인 죽음과 병든 정신의 죽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자살사고는 육체적 죽음이 아닌 병리적 서사와의 이별을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16].

작품서사를 통해 자기서사 분석을 하게 된 것은 기존의 심리검사에서 증상만으로 드러났던 우울과 강박 성향

의 근원적 원인을 관계의 서사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서사의 주체가 절망 앞에 놓인 선택이 유사하더라도 서사 주체의 수용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고, 이는 ‘죽음’의 의미를 실재와 정신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REFERENCES

- [1] J. Y. NAHO (2020). A Study on the Level Problem and Extension Direction of Deductive System of the Fundamental Epic in Literary Therapeutic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5(0), DOI 9-70. 10. 20907/ kslt.2020.55.9
- [2] J. Y. NAH.(2020). A Study on the Level Problem and Extension Direction of Deductive System of the Fundamental Epic in Literary Therapeutic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5(0), DOI 9-70. 10. 20907/ kslt.2020.55.9
- [3] D. H. Shin. (2020). Story-in-depth Diagnosis for Literary Therapy : Concept, Composi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MMSS, a New Diagnostic Tool.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4(0), 9-104. DOI 10.20907/kslt.2020.54.9
- [4] J. Y. Yoon. (2002). *Understanding psychological tests*. Seoul:Cigmapress. Chang, H. (2013a). *Autoethnography as method: Developing qualit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45-52
- [5]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1943). Hathaway & Mckinley.
- [6]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 [7] H. J Lee. (2020). *Exploring the concept and research type of self-culture journal based on counseling theory*. a doctoral dissertation in Korea,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Gyeongsangnam-do Province
- [8] Kathleen B. Kahn D. (1997). Art Therapy with Geriatric Dementia Clients, *Journal of the Art Therapy Association*, 14(3), 194-199
- [9] U. C. Jung. (2005). , The four areas of basic narrativ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human relations and the analysis of "Gyunmong", *Journal of Literary Therapy*, 3(1), 2-15.
- [10] S. S. Chon. (2020). Social Despair and Social-Epic of 〈Tiger Eyebrows〉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6(0), DOI10.20907/kslt.2020.?56.47
- [11] Weinstein, B. & Ventry, I. (1982). Hearing Impairment and Social Isol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ch*, 25(4), 34-38
- [12] Borges(2008).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the Mexican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Journal-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4(3).

- [13] S.E.Young(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Methods of Literary Treatment in Clinical Field: Based on the Clinical Experience of Literary Therapy as a Follow-Up Generation. *Journal of Literary Therapy*, 57(0), 83-112.  
DOI 10. 20907 /kslt. 2020.?57.83
- [14] P.Oster.(1997). *Palace of the Moon*,Seoul.,open books.42-48.
- [15] P.Oster.(1997). *Palace of the Moon*,Seoul.,open books.52-56.
- [16] Pelkone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Epidemiology, Risk factors and Approaches to Prevention. Paediatric Drugs*, 2003, 5(4), 243-265.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독문학 (문학학사)
- 201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학과 (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박사
- 관심분야 : 상담, 문학
- E-Mail : mlcej@hanmail.net